

권두언

충청남도 어촌, 연안 핵심공간의 비전을 실현하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승우 연구위원



‘해양건도, 충남’ 충남 어촌의 밝은 미래

이에 발맞춰 충청남도는 바다를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정책의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슬로건을 ‘해양건도(海洋建道), 충남’으로 설정하였으며 충청남도의 연안과 바다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하는 나침반으로서 해양수산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연안은 육지부와 도서부 등의 다양성으로 바다와 관련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풍부한 자원과 다양한 공간이 있어 연안의 복합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한 수도권 도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대천역까지 철도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여건은 도시민의 친수공간으로서 충청남도 어촌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수산물 생산의 어촌기능에 머무는 편협한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어촌의 다기능화가 필요하다. 또한 도서의 생태환경, 연안습지의 생태자원 및 공간, 어촌의 전통문화 등은 연안의 생태환경 지속성과 사회·문화 지속성과 함께 연안의 경제적 지속성을 이끌 수 있다. 연안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어촌과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정책의 추진은 어촌은 물론이고 충남 연안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생활의 공간이자 생산의 공간인 어촌은 삶과 함께 하는 경제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공간이자 국민의 여가 및 소비시장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에 시의 적절한 정책이 뒷받침 된다면 충남 어촌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먼저 다양한 자원과 공간의 특성을 가진 바다와 연안으로부터 잠재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수산·어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충청남도의 어촌·어항·어장 연계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충청남도 연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행복하게 살고 싶은 어촌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공간 어촌의 다양한 가치창출

충남 어촌의 미래, 행복한 어촌의 실현은 무엇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정책추진으로 가능하다. 충청남도는 어촌의 여러 가지 자원과 공간을 융·복합하여 창출한 상품과 서비스의 매력에 방문객으로 하여금 스스럼없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선도적 어촌을 만들어가야 한다.

어촌은 국토의 가장자리에 있는 낙후된 공간이 아니라 바다와 육지의 경계인 중요한 공간이다. 경계는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바다와 연안의 자원을 활용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어촌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때 지역주민과 국민이 함께 행복한 충남 어촌의 미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수산물 생산 중심 정책은 어촌 발전 저해

우리나라 어촌 주민의 대부분은 1차 산업인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아직 바다를 단순히 수산물의 생산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어,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어촌주민의 복합적 활용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산자원의 단편적인 활용으로 얻는 어촌의 부가가치는 수산물에 대한 생산 의존도가 높아 도시가구 소득과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어촌주민이 수산물 생산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낙후지역으로서 어촌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촌의 유지·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변화하는 수요, 새로운 상품 개발 필요

사회문화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어촌에 대한 국민의 수요, 즉 소비자의 수요 역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어촌에 대한 새로운 수요는 수산자원뿐만 아니라 자연자원, 역사문화 자원 등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의 활용 기회를 높여 어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할 가능성 또한 높이고 있다.

통합적 어촌정책과 함께 어촌주민이 이들 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경우, 어촌은 수산물 공급시장에서 또 다른 고유의 유형상품 또는 무형상품의 공급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